

THE INTERVIEW

‘하사’ 이정민! 2021 영플레이어상 수상을 신고합니다



KFA



12월 칼바람도 문제 없다!

KFA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인 '골든에이지' 훈련은 12월에도 계속됐다. 골든에이지 U-15 KFA센터 훈련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선발된 40명의 선수가 5일간 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기량을 향상시켰다. 연습경기에서 두 선수가 볼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2021년 12월 2일 목포국제축구센터 / 2021 골든에이지 U-15 KFA센터 훈련 중 연습경기 / U-15 KFA센터 vs 영광FC U-18

이 코너는 KFA 임원진이 유소년 지도자 및 선수를 비롯한 축구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창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제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소소한 이야기라도 진심이 담긴 한 마디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1월 호에는 지난해 초 새롭게 부임한 이천수 사회공헌위원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축구의 즐거움을 모든 분들과 나누기 위해 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월 KFA 사회공헌위원장으로 부임한 이천수입니다.

처음 위원장직을 제안 받았을 때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수 은퇴 이후 해설위원과 구단 행정가(인천유나이티드 전력강화실장)로 일했는데 좀 더 광범위하게 축구계를 아우르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참에 좋은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선수 시절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좋은 감독님과 스태프를 따라 경기장 안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구단 행정을 경험해보니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은 기본이고 유소년 육성이라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니 선수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경험이었고, 앞으로 사회공헌위원장으로서는 일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KFA의 미래는 사회공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대표팀 관리를 비롯해 지금까지 중요시되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구인과 대중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KFA는 모든 분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을지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축구의 즐거움을 알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FA가 CJ ENM과 함께 만든 오디션 프로그램 '골든일레븐',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을 비롯해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축구 실력에 상관없이, 남녀를 불문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축구를 즐기는 참가자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드컵의 해입니다.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무사히 통과해 본선에 오른다면 또다시 팬들의 사랑과 관심도 커질 것입니다. 그때쯤 저는 각 학교와 현장을 돌며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해 뛰겠습니다. 축구 팬들과 함께 하는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풀린다면 여러분과 현장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선배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선배님들을 돕는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축구를 그만두고 제2의 삶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업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축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FA 사회공헌위원장 **이천수**



1204 **풋살대표팀, AFC 풋살 아시안컵 예선 대비 훈련**

이상진 감독이 이끄는 풋살대표팀은 4일부터 8일까지 파주NFC에서 2022 AFC 풋살 아시안컵 예선 대비 2021년 1차 국내훈련을 실시했다. 대표팀은 8일 해산해 소속팀으로 돌아가 FK리그 경기를 치른 뒤 다시 파주에 모여 14일부터 18일까지 2차 국내훈련을 이어갔다. 풋살대표팀은 2022년 4월 열리는 2022 AFC 풋살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한다. 예선을 통과하면 2022년 10월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본선에 나선다.



1210 **2021 KFA 지도자 컨퍼런스 개최**

KFA는 12월 10일 울산 신라스테이 2층 특설무대에서 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FA는 국내외 축구의 주요 전술 흐름을 분석하고,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P급 지도자 강습회 과정 중인 지도자 27명이 직접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도 약 1,200명의 지도자가 참가했으며, 2021 K리그 결산과 기술 분석, 잉글랜드축구협회의 유로 2020 경기 분석 등을 다뤘다.



1215 **남자 U-20 대표팀 새 감독에 김은중 선임**

남자 U-20 대표팀 감독에 김은중(42) 전 올림픽대표팀 수석코치가 선임됐다. 김은중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U-20 월드컵 본선까지다. 1998년 아시아 청소년(U-19) 대회 우승, 2010년 K리그 MVP 수상 등 선수로서 족적을 남긴 김 감독은 2015년 벨기에 클럽 투비즈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U-23 대표팀의 코치로 활동하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우승에 기여했다.



1211 **전남드래곤즈, 사상 최초의 2부리그 FA컵 우승 달성**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1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 CUP 2차전에서 4-3으로 승리, 1·2차전 합계 4-4로 대구와 동률을 이뤘으나 원정골 우선 원칙에 의해 통산 네 번째 우승(1997, 2006, 2007, 2021)을 달성했다. 전남은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내년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직행 티켓을 따냈다. FA컵에서 1부가 아닌 하위 리그 팀이 우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214 **KFA, 2022년 예산은 1,141억 원**

KFA는 14일 축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2022년 예산을 1,141억 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안은 1월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2년 예산 1,141억 원은 2021년 998억 원보다 143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3년 1,234억 원에 이어 KFA 역대 예산 규모로는 두 번째로 많다. 2022년은 FIFA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경기 등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을 예상해 예산이 편성됐다.



1220 **KFA, 합천군과 고등대회 개최 협약식**

KFA와 합천군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합천에서 두 대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KFA가 지자체와 대회 개최를 위한 장기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의해 합천군은 대회 개최에 따른 유치금을 KFA에 제공하게 된다. 금액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각 대회별 1억8천만 원,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각 대회별 2억 원이다. 유치금은 전액 유·청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쓰인다.

CONTENTS

- 6 SKILL**
중거리슛, 이것만은 기억하자
- 10 THE INTERVIEW 1**
재무설계사로 변신한 허범산
“후배들이여, 미래를 위해 공부하길”
- 14 TACTICAL ANALYSIS**
토트넘에 이식한 콘테의 스리백,
리버풀도 긴장했다
- 16 THE INTERVIEW 2**
군인의 자부심을 갖춘 영플레이어
이정민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 20 TEAM 'HER' STORY**
크릭FS, 즐기자 선수의 열정으로
- 24 FOOTBALL TREND**
KFA 골든패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26 LEADERSHIP**
‘한 해 농사의 성공이 달려있다’
비시즌 슬기롭게 보내기
- 30 Q&A**
심판강사에게 물어보세요.
- 31 FOOTBALL TRIVIA**
징크스를 깨다

ON SIDE
2022 JANUARY VOL. 92

발행인 정몽규
편집 및 인쇄 (주)스토리하우스
발행처 KFA 대한축구협회 02-2002-0707

2022년 1월호 표지 모델 이정민(보은상무) 사진 광동혁

ON SIDE 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 바른 위치라는 의미로 오프사이드의 반대말입니다. KFA와 한국 축구도 반칙 없이 바른 위치에서 바른 마음가짐으로 활약하겠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축구 기술 향상과 정보 제공, 선진 축구 문화 형성을 목표로 제작했습니다.

이 책자는 KSPD 의 재정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중거리슛, 이것만은 기억하자

프로 선수들의 화려하고 멋진 기술에 감탄해본 적이 있다면 이제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손승준 KFA 전임지도자와 함께 핵심 포인트를 짚어본다.



지난 12월 12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21 강원FC와 대전하나시티즌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돌아보자. 승격과 강등이라는 명운이 걸린 이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전반 17분 만에 터진 이종현의 중거리슛은 분위기를 1차전 승리팀 대전으로 확 끌어왔다. 박진섭이 왼쪽에서 패스한 공을 깔끔하게 잡아 놓은 이종현은 골문으로부터 27~28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강력한 중거리슛을 때려 강원의 골망을 갈랐다. 불과 10분 뒤부터 승부가 뒤집혔고 대전은 승격에 실패했으나, 이날 이종현의 선제골은 승강 플레이오프 역사에 길이 남을 골이 되기에 충분했다.

Who 이종현

When 전반 17분 0-0 상황

Where 골문으로부터 27~28m 가량 떨어진 지점

What 중거리슛

Why

중거리슛은 전술적인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다. 전력 상 우세한 팀일지라도 상대 팀이 자기 진영 깊숙이 내려서서 수비를 할 경우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의 공간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때 중거리슛을 활용하면 상대를 앞으로 끌어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준비한 전술과 패턴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거리슛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이끌 수 있다.

보통 미드필더가 많이 사용하는 기술로, 미드필더가 중거리슛 능력을 키운다면 선수와 팀 모두에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리버풀FC에서 뛰었던 스티븐 제라드가 대표적이고, 한국 남자 국가대표팀에서는 황인범이 좋은 중거리슛 능력을 갖고 있다.

경기 중 중거리슛을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에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황 인지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슛하기 전에 머릿속에 슛의 이미지를 그리고, 퍼스트 터치 후 슛할 것인지, 움직임 가져간 후 슛할 것인지, 바로 때릴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훈련 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구현하고 슛 타이밍을 연습해야 한다.

이종현의 골 장면은 중거리슛의 매우 좋은 예다. 퍼스트 터치와 중거리슛을 위한 디딤발, 임팩트, 공에 체중을 실는 동작까지 매우 좋았다. 여기에 중거리슛을 잘하기 위한 포인트가 모두 들어있다.

How

중거리슛은 최대한 발목에 가까운 발등 중앙으로 공을 임팩트해야 한다. 발등의 넓은 면적으로 공의 중앙 부분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때리면 공이 힘을 받아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발목의 유연성이다. 발목을 쪽 펴야 발등의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는 발목이 흔들리거나 쪽 펴지지 않은 상태로 중거리슛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슛 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다. 프로 선수일 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누적된 잦은 부상으로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때문에 꾸준히 발목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발목 근력은 물론 코어 근력도 전체적으로 강화하면 도움이 된다.

TIP
01

- 발등의 넓은 면적으로 공의 중앙 부분을 임팩트한다.
- 발목을 쪽 펴는 것이 중요하다.



mid-range shoot

두 가지 각도에서 본 중거리슛

- 디딤발 : 중거리슛은 이동하는 공을 임팩트해야 하므로 공의 속력과 이동경로를 잘 예측해야 한다. 디딤발은 공의 바로 옆이나 조금 앞에 뒤야 슛에 힘을 실을 수 있다.
- 상체 : 상체를 숙이는 것 또한 슛에 힘을 실는 방법이다. 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상체를 숙여 공에 체중을 싣고 공과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한다.
- 시선 : 아무리 공이 멀리 날아가도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유효슈팅을 위해서는 정확한 임팩트가 필요하다. 임팩트 순간까지 공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된다. 끝까지 임팩트에 집중하자.

TIP
02



TIP
03

선수 시절 동료였던 김두현의 경우 훈련 전마다 발목 스트레칭을 하거나 개인 훈련 시간에 발목 강화 훈련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침대나 소파 같은 폭신한 곳에서 체중을 이용해 발목을 펴주는 것이다. 한 발씩(1) 또는 두 발을 함께(2) 스트레칭 해보자. 발목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재무설계사로 변신한 허범산

“후배들이여, 미래를 위해 공부하길”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에 흥미롭다. K리그 158경기를 뚫 베테랑 미드필더 허범산(32)도 은퇴 후 자신이 재무설계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K리그 팬이라면 허범산은 익숙한 이름이다. 재현고, 우석대를 거쳐 2012년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에서 프로에 데뷔한 그는 제주유나이티드,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현 충남아산프로축구단), 강원FC, 서울이랜드FC, FC안양 등에서 뛰며 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다.

빠른 드리블과 돌파력, 높은 수준의 빌드업 능력을 갖춘 허범산은 K리그에서만 158경기에 나서 6골 15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2016년에는 강원FC 소속으로 39경기에 출전해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K리그 승격에 기여했다.

2021년 초 은퇴를 선언하며 정든 그라운드를 떠난 허범산은 현재 축구와는 전혀 다른 분야인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무설계 컨설팅 회사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관리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그는 이제 유니폼보다 정장이 훨씬 잘 어울리는 비즈니스맨이 됐다.

저축에 대한 관심이 제2의 인생 열다

사실 허범산이 처음부터 재무설계사로 진로를 못 박아둔 것은 아니었다. 시작은 개인적인 관심이었다. 다른 프로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던 그는 무심코 고가의 소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저축의 중요성과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요즘 말로 ‘플렉스’라고 하죠(웃음). 저도 그런

플렉스를 많이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3천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면 시즌 끝나고 상당한 돈이 모여있잖아요. 그 돈을 한 달 안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축에 집중했는데 모으는 기쁨이 쓰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저축을 향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투자, 재무설계로 이어졌다. 허범산은 경기와 훈련이 없는 시간을 틈타 경제 관련 서적을 읽으며 지식을 넓혀갔다.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서 군 복무를 하던 시절에 같이 있었던 김도혁(인천유나이티드)이나 이명주(알와흐다FC)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죠. 둘 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는데도 실 때 틈틈이 관심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어요. 저는 실 때 게임만 했는데 말이죠.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무엇이든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죠.”

시간이 나는 대로 혼자서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했던 허범산은 은퇴 전 약 6개월 정도 경제 스터디에 참가하며 본격적인 지식 확장에 나섰다.

“FC안양 시절 후배의 연결로 저 포함 고참 선수들 몇 명이 모여 경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스터디를 해주셨던 분이 지금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시거든요.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니 문득 이쪽으로 진로를 이어 나가보면 괜찮을 것



- 01 평범한 직장생활을 '신나게' 하고 있는 허범산.
- 02 허범산은 제2의 인생이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 03 프로 마지막 커리어였던 안양에서의 허범산.
- 04 아산 시절 허범산은 '얼굴하는' 주변 동료들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무설계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터디에서 갖춘 지식과 인연은 은퇴 후 허범산을 지금의 회사로 연결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입사가 전부는 아니었다. 정식 재무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은 많았다. 보험, 연금,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 지식을 풍부하게 갖춰야 하며 영업 능력도 있어야 한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자격증도 따야 했다.

이 모든 것이 허범산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증, 생명보험설계사 자격증,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증은 기본으로 취득하고 시작해야 해요. 처음엔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집에서 벽보고 공부만 했어요. 계속 문제 풀고 외우고의 반복이었죠. 쉽지 않았어요.”

스스로 공부하며 터득한 지식과 함께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충실히 들었던 허범산은 조금씩 재무설계사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평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

을 터득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에게 이 일은 기쁨과 보람 그 자체였다.

“지금 하는 일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더 잘 맞는 일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특히 축구 후배들을 만나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새로운 일을 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적극적인 태도로 풀고 있다. “선수 시절에는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스트레스였죠. 남 탓도 많이 해봤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갖추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일ಿಗೆ 제가 못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럴 땐 혼자 사색하는 것보다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배울 것

허범산이 은퇴 후 재무설계사가 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반으로 갈렸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영업을 쉽지 않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후자에 속했어요. 지도자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죠.”

하지만 허범산은 지도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개인 레슨도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축구를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원래 지도자를 할 생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프로축구선수 허범산은 이제 재무설계사 허범산으로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실는다. 서울 성수동에서 거주 중인 그는 가산디지털단지 인근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가 되기도 전에 집을 나선다.

오전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회의와 개인 업무를 마치면 오후에는 외근을 나가 사람들을 만난다. 외근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타이프한 일상이지만 지칠 기색은 없다. 허범산은 새로운 삶에 신나게 적응하고 있었다.

“출근하면서 경기장을 오갈 때와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아요. 선수 시절에는 오로지 경기에 이기는 것에만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졌죠. 저는 선수로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에 은퇴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지금의 생활이 더 좋고 재미있습니다.”

축구선수 출신이라는 타이틀은 허범산이 새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동료들이 엄청 신기하게 봤어요. 영업 나가면 포털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해 고객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고 말한다고(웃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력이 아니기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앞으로 축구 후배들을 위한 시장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허범산은 후배들이 조금 더 알차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종종 주변 지인들에게서 ‘덕분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한다.

“저도 선수 시절 초반에 돈을 허투루 쓴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장기로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나름의 성과도 내보니 모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돈을

홍청망청 쓰는 후배들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바로 잡아주고 내가 느꼈던 기쁨을 후배들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20년 가까이 축구를 했던 허범산은 자신의 가능성을 축구에만 묶어두지 않았다. 축구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고마운 선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인생은 더 넓고 무궁무진하기에 한 곳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다.

축구든 축구가 아니면 분명한 관심사가 있다면 일찌감치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길이다. 허범산은 후배들이 은퇴 후 진로 선정에 있어 조금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길 조언했다.

“저희 때는 학교 수업에 잘 들어가지도 않았고 막상 들어가면 잠만 자는 경우도 많았죠.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져서 축구 못지않게 수업의 중요성도 높아졌어요. 옛날처럼 축구에만 올인하지 않고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셈이죠.”

“운동을 할 때는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관심사가 있다면 틈틈이 공부를 하는 것을 추

천합니다. 운동과 공부를 잘 병행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거예요.” **ON**





토트넘에 이식한 콘테의 스리백, 리버풀도 긴장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한 토트넘홉스퍼가 올해도 맨체스터시티와 선두권 경쟁을 벌이는 리버풀FC를 위협했다. 콘테의 스리백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콘테의 스리백, 리버풀에도 통했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스리백 장인'이라는 별명답게 토트넘에도 스리백을 이식했다. 콘테는 2011-2012시즌에 주로 3-5-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유벤투스의 리그 무패 우승을 이끌었다. 조르지오 키엘리니-레오나르도 보누치-안드레아 바르잘리로 이어지는 중앙수

비수 라인은 유벤투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도 큰 무기였다. 단단한 스리백 라인에 더해 공격적인 윙백 활용으로 재미를 봤다. 이날 경기에서 콘테는 3-5-2(또는 5-3-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토트넘 부임 이후 3-4-3을 시험했던 콘테는 리버풀을 상대하는 이날은 중원을 보강하는 선택을 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 투톱으로 나섰다. 양쪽 윙백은 라이언 세세

농과 에메르송 로얄이 맡았다. 가장 관심을 끈 미드필더 라인은 델리 알리, 해리 윙크스, 은돔벨레로 구성됐다. 벤 데이비스 - 에릭 다이어 - 다빈손 산체스가 스리백으로 나섰다, 골문은 위고 요리스가 지켰다. 토트넘은 수비시 5-3-2로 대응했다. 철저하게 정비된 수비를 펼쳤고, 전방 압박도 많지 않았다. 공격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잠시 압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인을 올려서 싸우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공간과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블록을 쌓아놓고, 특정지역(대부분 측면)으로 볼이 들어가면 압박을 가하는 형식이었다.

이날 토트넘은 3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나섰다. 아마도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이 3명을 누구로 구성할 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토트넘에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처럼 활동량이 뛰어난 미드필더가 있지만 두 선수는 이날 선발로 나설 수 없었다.

결국 콘테는 윙크스를 중앙에 두고, 알리와 은돔벨레를 양 옆에 포진시키는 선택을 했다. 주력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원 숫자를 더한 것으로 보인다. 알리와 은돔벨레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이지만 이날만큼은 많이 뛰면서 수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로 점유율(56대 44)에서 밀렸고, 슈팅 숫자(18대 10)에서도 뒤졌지만 위협적인 득점 찬스는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냈다. 토트넘은 볼을 빼앗으면 약속이라도 한 듯 손흥민이 배후 침투를 하고, 세세농과 에메르송이 직선적인 움직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리버풀 수비진에 부담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도 마음 놓고 공격에만 집중할 수 없었고,

토트넘의 역습에 대비하느라 공수 간격이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포메이션의 특성상 3명의 미드필더들에게 필연적으로 체력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5-3-2로 수비할 때는 아무래도 '3'에 해당하는 위치의 양 측면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미드필더들이 좌우로 많이 뛰어다녀야 한다. 리버풀이 이 지점을 잘 공략하면서 두 골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3-5-2에서 살아난 손흥민의 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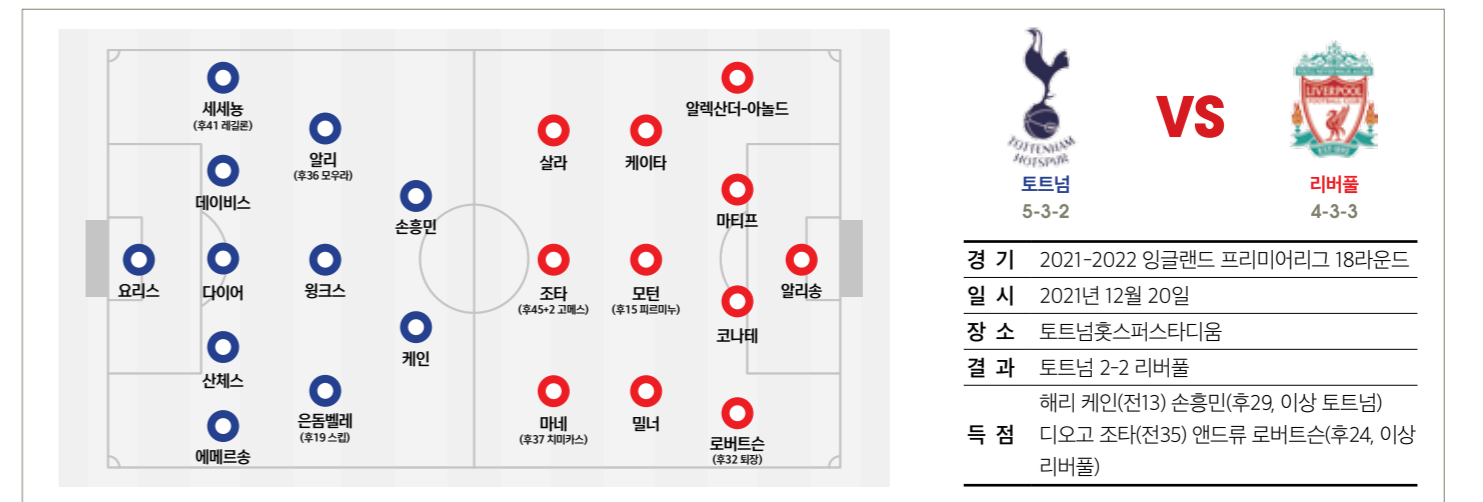
콘테는 부임 이후 3-4-3 포메이션을 주로 실험했고,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윙포워드로 나섰다. 하지만 사실상 미드필더처럼 활동했다. 아무래도 3-4-3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1선에서 내려와 연계 플레이를 해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손흥민의 공격 성향이 100% 발휘되기는 어렵다. 많이 뛰면서 체력 부담이 커지고, 2선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아 볼을 빼앗았을 때도 골문까지의 거리가 멀다. 손흥민의 최대 장점인 폭발적인 스피드를 통해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3-5-2 체제에서 손흥민은 훨씬 편해 보였다. 손흥민과 케인은 수비시 자리만 잡고 있을 뿐 많이 뛰는 모습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콘테 감독이 두 선수에게는 역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보였다. 아마도 이 전술에서 손흥민이 더 재밌게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리버풀의 전술은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4-3-3을 기반으로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축구를 하는 위르겐 클롭 감독의 색깔이 여전히 뚜렷하다. 리버풀 역시 기존 멤버의 공백으로 새로운 선수들이 스쿼드에 들어왔지만 누가 들어오더라도 자신들의 축구를 구현해냈다. 특히 빠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 포메이션의 약점('3'에 해당하는 지역의 양 측면)을 공략해 두 골을 뽑아내는 과정도 괜찮았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후반 교체 승부수가 먹혀들지 않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타일러 모턴을 빼고 호베르투 피르미누를 투입한 클롭 감독은 나비 케이트를 홀딩 미드필더로 내리고 피르미누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했다. 중원 숫자를 늘려 상대를 더욱 압박하려 한 의도였으나 후반 32분 앤드류 로버트슨이 퇴장당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ON





군인의 자부심을 갖춘 영플레이어 이정민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여자 국가대표팀의 신예 이정민(보은상무)이 설영우(울산현대)와 함께 '2021 KFA AWARDS 올해의 영플레이어'에 선정됐다. 재능과 성장 가능성을 모두 지닌 이정민은 자신이 꿈꾸는 대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그라운드 위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2021년은 이정민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여자 국가대표팀에 꾸준히 소집돼 짧게나마 꿈에 그리던 데뷔전을 치렀고, 어엿한 WK리거가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축구선수와 직업군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보은상무 소속으로 남들이 해보기 힘든 경험도 했으며, 한 해의 끝에 와서는 '2021 KFA AWARDS 올해의 영플레이어'에 선정되는 영광도 안았다.

한국 여자축구의 세대교체를 이야기할 때 이정민의 이름은 빼놓을 수 없다. 여자 U-20 대표팀의 주축이었던 그는 뛰어난 공격 능력을 갖췄지만 필요할 경우 수비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하다.

장점이 많고 성실한 선수인 만큼 여자 국가대표팀의 일원이 되기에 충분했다. 2020년 11월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던 국가대표팀에 처음으로 발탁된 이정민은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집돼 베테랑 선배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값진 경험을 쌓았다.

지난해부터는 보은상무의 일원이 된 만큼 책임감도 더해졌다. 지난해 말 파주NFC에서 진행된 여자 아시안컵 대비 국가대표팀 소집훈련에 보은상무 소속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정민

은 "상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상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2021 KFA AWARDS 올해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을 받게 돼 기뻐요. 2021년 WK리그와 여자 국가대표팀에서 꾸준히 달려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게 되니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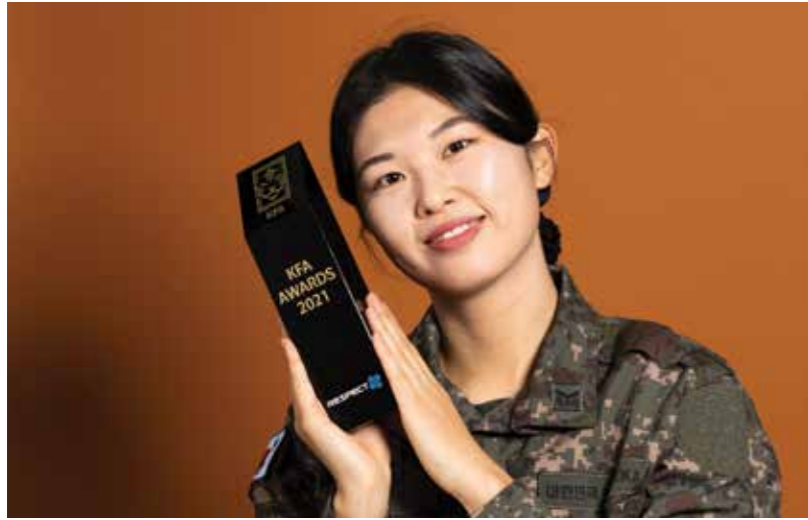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요?

돌아보면 참 스펙터클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군대도 갔다 왔고 WK리그 데뷔도 했고 여자 국가대표팀에도 왔잖아요. 2020년까지만 해도 내년에 과연 내가 어디에 있을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았는데 이렇게 군복을 입고 상도 받고 인터뷰도 하게 되니 사람 일 참 신기한 것 같아요(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군사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보은상무 입단 직후 4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는데 부사관





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 만큼 기초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거든요. 축구로 치면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요? 당연히 군사훈련을 모두 끝낸 날이죠(웃음).

드래프트 대신 보은상무 입단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2019년 여자 U-19 대표팀 시절에 현 보은상무 감독님이신 이미연 감독님이 코치로 팀에 계셨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이미연 감독님이 WK리그에서는 유일한 여성 지도자였어요. 딱 봐도 카리스마 있고 정말 멋있으시잖아요. 성격도 좋으시고요.

감독님 밑에서 언젠가는 꼭 한 번 축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보은상무 입단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죠. 군대를 가야 했지만 '까짓거 한 번 해보지'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결정했어요. 평소 축구말고도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색다른 도전을 하는 것도 좋아했기에 보은상무행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다들 놀라더라고요. 진심으로요. 사실 저도 제가 보은상무에 입단해 군대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가족들은 더 그러겠죠.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깐 잘 해내라고 담담하게 응

원해주시더라고요.

축구선수와 직업군인으로 투잡을 뛰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보은상무에 들어와서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직업군인으로 일할 수 있기에 안정적인데요. 먼 미래를 내다 본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팀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보은상무를)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좋은 선수들이 팀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직업군인으로서 자랑할만한 복지는 무엇인가요?

직업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큰 것이 있다면 명절 때 들어오는 떡값(명절 특별 수당)이 생각보다 쓸쓸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웃음).

애로사항은 없나요?

저희는 축구선수이지만 그전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디서든 모범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자유롭지 않은 면이 있긴 해요.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모범을 보여야 하죠. 그래도 그 점을 빼면 다른 실업팀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보은상무 선수로 WK리그 첫해를 보냈는데 어땠나요?

대학 때는 공격적인 축구를 주로 했는데 지금 보은상무에서는 수비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죠. 경기를 뛰고 부딪히면서 배워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WK리그는 대학보다 템포가 훨씬 빨라요. 걸어 다닐 틈도 없이 90분 내내 열심히 뛰었던 기억 뿐이에요.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요?

72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2021시즌 3골을 넣었는데 그중 한 골이 인천현대제철과의 경기에서 나온 골이었거든요. 강팀인 인천현대제철을 상대로 골을 넣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

닐 수 없죠. 이미연 감독님도 좋아하셨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이번 대표팀 소집 선수 중 유일한 보은상무 소속이에요.

권하늘 상사님이 그동안 꾸준히 대표팀에 오셨는데 이번에는 안 오셨어요. 보은상무 소속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죠. 상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행동을 잘하려고 해요. '이것이 상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권하늘 상사님은 어떤 선배인가요?

처음 대표팀에서 만났을 때는 잘 몰랐는데 보은상무에 입단하며 같은 팀이 되어보니 주장으로서의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린 후배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서 잘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사주시죠. 운동장에서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누가 봐도 주장감인 선배예요.

올해는 저도 후배들을 맞이하겠죠. 저희가 1년간 겪었던 모든 것들을 후배들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때 저도 권하늘 상사님처럼 좋은 선배 역할을 하고 싶어요. 힘들 때 보듬어주고 위로를 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요.

PROFILE

생년월일 : 2000년 11월 11일
 신체조건 : 168cm
 포지션 : MF
 출신팀 : 창원명서초-함안대산중-충남인터넷고-경북위덕대-보은상무

대표팀에 올 때마다 보은상무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군인하면 무엇보다도 자부심이잖아요. 군복을 입게 되면 자세부터 달라지는데 이걸 축구 유니폼을 입어도 마찬가지로요. 보은상무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군인인 만큼 약착같은 모습,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소연, 조소현, 김혜리 등 베테랑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언니들은 정말 클래스부터 다른 것 같아요. 패스를 해도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아요. 나이를 먹어도 꾸준히 정상급 기량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원래 공격수이지만 대표팀에 와서는 측면 수비를 보고 있어요. 많이 서보던 자리가 아닌 만큼 미숙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다행히 반대편에 있는 (김)혜리 언니가 많이 도와주세요. 한 가지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죠. 저도 언니의 플레이를 보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난해 10월에 열린 미국 원정에서는 짧게나마 A매치 데뷔전을 가졌어요.

미국과의 원정 2차전 때 후반 추가시간에 들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긴 하지만 짧게나마

A매치 데뷔전을 치를 수 있어서 영광이었죠. 당시 경기장에 관중이 2만 명 정도 들어와 있었는데 추가시간에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2분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체감상 수십 초 밖에 안된 것 같았어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1월에 열리는 여자 아시안컵을 앞두고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미국전과 뉴질랜드전을 치르면서 좋은 경기를 했지만 반면에 부족한 점들도 있었어요. 남은 기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팀 전체가 바라는 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시안컵에 나가게 되면 큰 영광일 것 같아요. 큰 대회에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되죠. 1분이라도 뛰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2022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아직은 경기장에 나설 때보다 벤치에 앉아있는 경우가 더 많지만 조금씩 경험을 쌓아서 성장하고 싶어요. 제가 어디에 있던 팀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9월 여자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한 이정민(앞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크릭FS,

즐기자 선수의 열정으로

Team 'HER'story



크릭FS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크릭(CRIC)의 장준영 대표와 2010 FIFA U-17 여자 월드컵 우승 멤버였던 주수진 씨가 힘을 합쳐 2021년 결성한 풋살팀이다. 대다수가 과거 축구선수로 활동했던 20대 중후반의 여성들로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마다의 이유로 일찍 선수 생활을 접었지만 축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만큼은 접지 못했다.

주수진 씨는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하게 월드컵을 들어 올린 대회인 2010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만큼 촉망받던 유망주였다. 스페인과의 준결승전에서는 역전골을 기록하며 한국의 결승 진출을 이끌기도 했다. 2014년 대전스포츠포토(현 세종스포츠포토)에 입단하며 WK리그 무대를 밟았던 그는 2019년 서울시청에서의 마지막 시즌을 끝으로 선수 은퇴를 결심했다. 은퇴 후에는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을 따 현재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은퇴 후에는 한동안 축구를 전혀 안했어요. 자격증 공부 때문에 바쁘기도 했고, 은퇴 직전에 발목 부상이 있었던 터라 축구를 하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장준영 대표님이 풋살팀 결성을 제안했을 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면서요(웃음). 일이 아닌 취미로 즐겨보자는 다짐을 하며 시작했는데, 시작 전에 했던 고민이 별 것 아니었다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진짜 할 걸!”

축구팀이 아닌 풋살팀을 선택한 것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였다. 11대11인 축구보다는 5대5인 풋살이 선수 구성과 경기장 대관 면에서 편리하고, 부상 또는 체력 문제를 가진 은퇴 선수들이 부담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선수 시절 훈련 겸 레크리에이션으로 풋살을 경험했던 멤버들은 빠르게 풋살의 규칙과 스타일에 적응했다.

“처음 멤버 모집을 할 때는 지인을 통해서 했어요. 제 지인이 들어오고, 지인의 지인이 들어오고,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웃음) 그래서 지금은 20명이 조금 안 되는 정도예요. 다들 은퇴 후에도 몸이 근질근질했던 건지, 같이 풋살을 해보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답해줘서 고맙죠. 다들 공 차는 게 싫어서 은퇴한 건 아니니까요. 뭐든 일이 되면 힘들지만 취미로 공을 차니까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수진 씨는 크릭FS의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고 있다. 경기장에서 멤버들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풋살 전술을 공부해 공유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주수진 씨는 크릭FS에서의 활동이 현재 직업인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강사가 된 후에는 직접적으로 몸을 쓸 일이 줄어들었는데, 풋살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라테스 지도의 질을 높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생활의 활



스포츠에서 엘리트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요즘이다. 엘리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마추어처럼 풋살을 즐기는 크릭FS가 새 장을 열고 있다.

력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는 “쉬는 날 풋살하러 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안경미 씨는 주수진 씨의 제안으로 크릭FS 결성 단계부터 함께한 멤버다. 그는 주수진 씨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역시 선수 출신인 안경미 씨는 현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프리랜서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까지 선수 생활을 했어요. 대학생 때도 하긴 했지만 팀이 해체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선수 생활을 못했어요. 선수 생활을 그만둔 이후에도 한 달에 몇 번씩 축구를 했어요. 취미로요. 동네 여성축구단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지인들과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공 차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하고 배운 게 그것뿐이잖아요(웃음).”

팀 해체라는 아픔을 겪고 원치 않게 이른 은퇴를 했지만 축구에 대한 애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 차는 게 제일 재밌다”는 안경미 씨는 풋살을 통해 축구선수로서의 못다 푼 한을 풀고 있다.

“처음 모여서 운동할 때는 다들 은퇴한 지 꽤 됐다면 몸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 다들 날아다녀요. 승부욕도 여전히 살살 한다더니 태클이나 몸싸움도 참지 않죠(웃음). 다들 욕심이 생기니까 풋살 규칙도 배워오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팀워크를 다지고 있어요. 선수 출신으로서 서로 공감대가 있으니까 더 친밀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선수 출신으로서 서로 공감대가 있으니까 더 친밀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

안경미




안경미 씨의 말에 양의인 씨도 공감했다. 양의인 씨는 중학교 1학년 때 까지 한국에서 엘리트 축구선수 생활을 하다 캐나다로 이주했다. 캐나다에서도 축구를 계속하긴 했으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엘리트 축구선수를 하겠다는 바람은 이루지 못했다. 그는 현재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체육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오랜 외국 생활 후 다시 모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의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된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옛날 추억을 많이 떠올렸어요. 친구, 선후배들과 어울려서 공 차는 걸 다시 하고 싶었죠. 선수 시절 선배의 연락을 받고 크릭FS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렇게 매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어릴 때부터 알던 멤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멤버들과도 금방 친해졌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요. 다들 선수 생활을 해봐서 서로 이해하고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적으로도 서로 많이 만나고 연락을 자주 해요.”

주장 주수진 씨는 이런 크릭FS의 분위기를 “전우애”라고 표현했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은퇴 전 선수 생활이 마냥 즐거운 일로만 가득했을 리 없다.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찾아 사회에 나서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고됐던 경험들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이 된다.

크릭FS는 지난 12월 제8회 AoA SPORTS 전국 여성 풋살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다. 9개 팀 중 선수 출신이 다수 속한 팀도 꽤 있어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졌다. 주수진 씨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크릭FS가 더 끈끈해진 것 같다고 했다. “즐거자. 그렇지만 선수 시절의 열정으로 하자”는 다짐은 결성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크릭FS를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최근 신입 회원 모집을 시작한 크릭FS는 외연 확장에도 의지를 갖고 있다.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축구와 풋살을 열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든 회원이 될 수 있다. 주수진 씨는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 방영된 이후 축구나 풋살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크릭FS 또한 여자축구와 여자풋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KFA가 2020년 구축한 유소년 역량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골든패스(Golden Pass)'가 3년 차를 맞이했다. 골든패스는 무엇이며, 추후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KFA 골든패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축구는 과학이 아니지만 과학은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축구계에서 유명한 격언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물과 현상의 이치를 밝히는 과학은 유소년 선수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KFA는 유소년 선수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정하고, 이를 지표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골든패스는 KFA의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인 '골든에이지(Golden Age)'에서 따온 이름으로 핵심 유망주들로 구성된 골든에이지 선수들의 역량을 측정 및 관리하는 데이터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골든에이지 프로그램을 시행해온 KFA는 시행 과정에서 골든에이지 선수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 2019년부터 유소년 역량 데이터 측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역량 측정 체계와 데이터 플랫폼을 갖추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현재 골든패스는 유소년 선수의 핵심 역량을 6개 영역(신체 정보, 기술, 지능, 피지컬, 심리, 특별함)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세분화된 역량 지표를 측정한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축적된 역량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KFA 전임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직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지도자가 선수에게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개선할 점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도자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스스로 부족한 점을 파악해 이를 보완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KFA는 선수가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습득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동영상 형태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동영상 교육은 심리와 태도, 축구 의과학, 체력, 축구 기술 및 전술로 약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역량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향후 KFA는 기술발전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지션별로 특화된 지표의 재정립 및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유소년 선수가 각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역량 지표의 최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성인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취약 포지션을 보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골든패스가 '요술 방망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골든에이지 선수들의 역량 지표는 KFA 전임지도자가 선수의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있어 유용하지만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다. 데이터가 변화하는 추이를 살펴보면서 현재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참고자료다. 또한 현재의 우수한 역량 지표가 미래에 우수 선수로 성장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ON**



KFA는 골든 패스 시스템 소개 및 유소년 역량 지표의 측정 방법과 관련한 튜토리얼 영상을 배포해 일선 지도자들도 쉽고 간단하게 선수들의 역량을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튜토리얼 영상은 유튜브 채널 'KFATV_대한민국 축구지식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4J12b2kZs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성공이 달려있다’

비시즌 슬기롭게 보내기

축구는 365일 돌아간다.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비시즌도 예외는 아니다. 한 해 농사의 성공 여부는 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 감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감독들은 비시즌에도 쉴 수 없다

국내축구 시즌은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다음 시즌이 개막할 때까지 약 두 달 정도의 비시즌 기간을 보내게 된다. 선수들은 이 기간 휴가를 떠나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에 나서지만 감독은 쉴 시간이 없다. 쌓여있는 현안을 처리하고 다음 시즌 계획을 짜기에도 바쁘기 때문이다.

감독들은 팀의 사정에 따라 비시즌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만족할만한 성적을 낸 팀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팀은 비시즌에도 시즌처럼 분위기를 이어가기도 한다.

2021년 WK리그에서 7위를 차지했던 세종스포츠포트토의 윤덕여 감독은 시즌 종료 직후 한 달 정도의 휴식을 가진 뒤 일찌감치 훈련을 재개했다. 물론 시즌 중에 실시하는 훈련처럼 타이틀 하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다시 잡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저항도의 훈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쪽을 택했다.

2021년 초 세종스포츠포트토는 여자 국가대표팀 사령탑을 역임했던 윤덕여 감독을 영입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윤 감독은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한데 모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했던 점들이 많이 보였다. 이를 조금씩 시정하고 보완해나가기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2021년 K4리그 신생팀으로 참가해 승격까지 단번에 성공한 화제의 팀 당진시민축구단은 목표를 달성한 만큼 우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휴식은 길지 않다. K3리그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두 배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민 감독은 “12월 말에 선수단을 소집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2021시즌을 앞두고는 동계훈련을 비교적 늦게 시작했지만 2022 시즌에는 일찌감치 준비하려고 한다. 소집 직후에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집중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시즌 최대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동계훈련은 다음 시즌의 성공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팀 전력의 밑바탕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릴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감독들은 동계훈련을 앞두고 훈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훈련 장소와 기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팀에 맞는 동계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고민은 더 늘어났다.

한상민 감독은 “K3리그 승격이 확실해지면서 그때부터 동계훈련지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다소 늦어진 편이라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운동장과 숙소, 식당까지 모두 고려해 동계훈련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다. 현재 동계훈련지를 확정짓는 한 상태지만 만일을 대비해 다른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만남과 이별은 자연스럽게

동계훈련 만큼이나 중요한 비시즌 이벤트는 바로 선수단 개편이다. 기존에 있던 선수가 나가고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는 이 시기는 의도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해질 수 있다. 이를 바로잡고 '원팀(One Team)'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감독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윤덕여 감독은 2021시즌이 끝난 후 10명의 선수를 자유계약(FA), 은퇴로 내보냈다. 윤 감독은 "선수단이 대폭 바뀌는 시기인 만큼 분위기도 어수선해질 수 있다. 한 시즌이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은 과연 본인들이 다음 시즌에도 남아있을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고 했다.

사실 이러한 불안은 선수라면 누구나 가질만하다. 속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선수가 이 불안을 온전히 극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독이 도와줘야 한다. 감독은 선수의 미래와 팀 전체를 동시에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덕여 감독은 "비시즌이 되면 한 해의 결과물이 나온다. 그 결과물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선수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팀 분위기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꾸준한 대화는 꼭 필요하다. 이는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간의 조합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다수의 주축 선수들을 내보내고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축구는 비시즌 때마다 팀 색깔을 처음부터 새로 구축해야 한다. 프로나 실업팀처럼 선수를 영입하고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로 새 선수들을 받는 만큼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뽑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있는 자원에서 최대의 능력치를 뽑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01



03

- 01 비시즌은 선수 이동으로 어수선해진다. 윤덕여 감독은 대화를 통해 팀 분위기를 다스린다.
- 02 한상민 감독은 꾸준한 해외축구 시청과 보수교육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한다.
- 03 이장관 감독은 새로 들어오는 선수를 파악하기 위해 마라톤 미팅을 꺼리지 않는다.



02

2021년 전국대회 3관왕으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용인대 이장관 감독도 2022년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다. 이 감독은 "대학축구는 1년 동안 어느 정도 팀의 색깔을 갖춰놨다 싶으면 선수단이 대거 빠져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국대회가 1월 초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새로운 선수들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장관 감독은 새롭게 들어오는 신입 선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마라톤 미팅도 꺼리지 않는다. 시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은 만큼 틈나는 대로 미팅을 진행하며 선수를 파악해야 다음 시즌 계획을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장관 감독은 "미팅을 통해 선수의 기량뿐만 아니라 성격도 파악한다. 내성적인 성격인지 외향적인 성격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미팅을 통해 선수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면 다가오는 1월 전국대회에서 어떤 스타일로 나서야 할지 감이 잡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팀도 더했다. 이장관 감독은 "나는 혈액형에 따른 성격을 어느 정도 믿는 편이다. 예를

들어 A형의 경우 수비적인 면이 강하고 O형은 대범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신의 혈액형과 비슷한 축구 스타일을 지니고 있었다. 나중에 이를 주제로 논문을 써보고 싶을 정도로 나에게 (혈액형 파악이) 흥미로운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도 중요

선수 파악과 팀 스타일 구축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감독들이지만 그래도 비시즌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적으로 축구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서 공부의 중요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상민 감독은 "요즘 열심히 해외축구를 시청하고 있다. 또 미뤄뒀던 지도자 보수교육을 받

며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선진축구를 보면서 우리 팀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한다.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우면서 팀에 녹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지도자 경력 30년 차가 된 윤덕여 감독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윤 감독은 "다른 감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해외축구를 꾸준히 보고 있다"면서 "축구는 여자나 남자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해외의 선진축구를 다양하게 보면서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복습을 꾸준히 하는 케이스도 있다. 이장관 감독은 해외축구 시청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감독은 "해외축구도 시청을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팀의 부족했던 점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팀의 경기 영상을 더 많이 되돌려보고 있다. 우리 팀의 경기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다 보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눈에 보이게 되고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표현했다.

비시즌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답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 팀 사정에 맞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고 분위기를 끌어올려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 있어 감독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고민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윤덕여 감독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이다. 축구도 그렇지만 축구 외적으로도 기본에 충실해야 다음 시즌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시즌까지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축구 외적으로는 하나의 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시즌 때는 기본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이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N

심판강사에게 물어보세요.

보고 또 봐도 어렵고 헷갈리는 것이 축구 규칙이다. 선수와 지도자들의 규칙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유병섭, 강창구 KFA 전임 심판강사에게 물었다.



강창구 심판강사

유병섭 심판강사

Q 1 2년 전쯤 규칙이 바뀌어 골킥을 하는 팀의 선수는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도 골킥한 볼을 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는 페널티에어리어 밖에 있다가 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골킥퍼가 경기를 빨리 재개하려고 상대 선수가 페널티에어리어를 벗어나기도 전에 골킥을 했을 때, 상대 선수가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이 볼을 가로채면 어떻게 되나요? 또 이런 상황에서 골킥하는 순간 페널티에어리어 안에 있던 상대 선수가 골킥 후에 재빨리 뛰어나가 페널티에어리어 밖으로 나간 볼을 잡으면 이것도 반칙인가요?

골킥에서 볼이 킥되어 명확하게 이동하면 인플레이가 되고, 상대 선수는 인플레이가 될 때 페널티에어리어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원칙은 변함 없습니다. 다만 골킥이 되는 순간 상대 선수가 밖으로 나갈 여유가 없어 페널티에어리어 안에 있더라도 플레이가 계속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페널티에어리어 안에서 골킥 재개를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상대 선수 또는 볼이 인플레이 되기 전에 페널티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온 선수는 볼을 터치하거나 볼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위 두 가지 상황이 아닌 경우 이미 인플레이가 됐고 수비수의 실수로 상대 선수에게 볼이 갔다면, 공격수는 볼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빠른 골킥이 수비 팀에 의해 시작된 것이므로 수비 팀의 실수까지 보호해 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페널티에어리어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2 VAR을 적용하는 경기에서는 득점이 되더라도 득점이 이뤄지기 전에 오히려 반칙 상황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득점 이전의 장면을 체크하다 보면 계속 과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득점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을 무한정으로 모두 체크할 수는 없을 텐데, 어느 시점부터 체크하는 것인가요? 공격 팀의 반칙성 플레이가 있었지만 심판이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켜 양 팀 간에 볼 경합이 벌어지고, 이후에 공격 팀이 득점을 하면 이것도 VAR로 체크해서 공격 팀의 반칙으로 득점이 취소되나요?

VAR은 경기 규칙과 관련하여 득점, 페널티킥 상황,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 및 방해로 인한 퇴장 상황은 해당 판정 상황까지 직접 이어진 공격 과정(APP : Attacking Possession Phase)을 체크하고 판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격 팀이 오픈 플레이에서 어떻게 볼의 소유권을 얻었는지도 포함됩니다.

즉, 위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VAR은 반드시 APP를 체크해야 합니다. APP는 어느 한 팀이 볼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볼 소유 시 반칙 유무)하고 득점을 하기 위한 유망한 공격적 플레이 과정을 말하며, 수비 팀의 선수 또는 팀이 볼을 완전히 소유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이라면(볼 경합 상황도 마찬가지로) 계속 APP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공격 팀이 슛한 볼이 골킥퍼, 수비수, 골포스트, 크로스바 등에 맞고 굴절 리바운드 되어 다시 공격 팀이 볼을 소유하였다면 APP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반칙이 APP에 포함되면, 득점을 취소하고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 팀의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하고, 반칙이 APP에 포함되지 않으면 주심의 결정이 없었으므로 득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규칙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kwontj@kfa.or.kr로 문의해주세요.

징크스를 깨다

광연
스포츠에서 특정 팀에 매년 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이어지면 저주 또는 징크스라고 하잖아. 그런 징크스가 스토리를 만들고 팬들을 즐겁게 하는 것 같아.

대우
맞아. 하지만 징크스를 깨지 못하는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

광연
맞는 말이야. 그렇다면 퀴즈! 징크스를 깨자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대우
'깨다'의 뜻을 가진 동사 break를 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징크스가 영어로 뭐야?

축구만큼 글로벌(global : 세계적인)한 스포츠는 없다. 축구를 통해 배우는 영어회화로 글로벌한 축구인이 돼보자. <한 권으로 읽는 축구영어>에서 유용한 표현을 엄선했다.

재수 없는 일, 불운 등을 뜻하는 징크스는 영단어 jinx에서 온 외래어다. '징크스가 이어지다'는 continue the jinx, '징크스를 깨다'는 break the jinx라 표현할 수 있다. 명사 jinx는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hoodoo로도 대체할 수 있다. break 대신 '극복하다'는 의미의 get over를 써서 get over the jinx, 또는 put the jinx to bed라고 해 '징크스를 잠재우다'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예문 01

Japan continued the jinx of never beating the Koreans in a major tournament. 일본은 주요 대회에서 한국을 꺾지 못하는 징크스를 계속 이어갔다.

예문 02

Our club finally ended 4 months without a win by beating the best side of the league. It is always nice to put that hoodoo to bed. 우리 클럽은 리그 최고의 팀을 이김으로써 4개월 동안의 무승을 마침내 끝냈다. 그런 징크스를 잠재우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다.

영원히 퇴장당하시겠습니까? 멈추지 않으면 당신의 축구 인생은 없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승부
조작

금품
수수

폭력
폭언



대한축구협회 KFA 신문고센터

· 사이트 : www.kfa.or.kr

스포츠 윤리센터

· 사이트 : www.k-sec.or.kr · 전화 : 1670-2876



대한축구협회